

2026년 10월 둘째 주, 구역 공과

36 가라, 내가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9장 10~19절(신약 202)-

예배순서

• 찬송: 500/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499/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평소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는 편인가? 아니면 쑥스러워 연락 안 하는 편인가?

말씀 속으로

본문은 교회의 극심한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의 상황을 다룬다. 본문은 사울뿐 아니라 다메섹에 살던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목한다. 아나니아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던 성도였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는 명령을 내리신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인간적 두려움을 뚫고 순종하여 역사적인 영적 돌파구를 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두려워하지 말고 _____

주님은 환상 중에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직가’라 하는 거리의 유다 집으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주신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수집해 둔 정보를 먼저 내세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자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13절) 아나니아가 꺼내 둔 데이터는 거짓이 아니었다. 사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공문을 받아 성도들을 잡아 가두려 원정을 온 잔혹한 핍박자였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나니아의 정보는 정확한 팩트였다. 그러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내 정확한 경험과 데이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태도다. 우리 역시 전도 대상자를 향해 낯은 데이터를 켜 둔 채 단정 짓곤 한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항변을 들으시고 그의 낯은 데이터를 단칼에 폐기하신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15절)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며 새 지도를 펼쳐 보이신다. 아나니아의 낯은 시선으로는 ‘교회를 짓밟을 핍박자 사울’이었지만, 주

님의 시선으로는 ‘세계를 복음화할 택한 그릇 바울’이었다. 전도는 내 머릿속의 계산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한 걸음을 떼는 것에서 시작된다.

2. 두려움 너머, _____이 미리 일하고 계신다

사울은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난 뒤 시력을 잃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깊은 암흑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행 9:9).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어 감격스러운 전환을 보여준다.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10절) “그 때에!” 사울이 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낼 아나니아를 이미 부르고 계셨다. 아나니아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울이 달려들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을 모두 내려놓은 채 눈이 먼 상태로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었다(11절). 겉모습은 사나운 맹수 같았지만, 속은 길 잃고 탈진한 양에 불과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신비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나 가족은 겉으로는 냉소적이어도, 홀로 있는 밤 인생의 한계 속에서 영적인 어둠을 통과하며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전도는 내 달변으로 사람을 꺾는 행위가 아니다. 내가 다가가기 전,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 밭을 기경(起耕)해 두신다.

3.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_____의 발걸음을 따라

아나니아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유명한 거장이 아니었다. 우리와 똑같이 원수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항변하던 평범한 성도였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땀다. 아나니아는 핍박자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손을 얹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라고 선포한다. 순종의 신비는 발걸음을 옮길 때 비로소 일어난다. 내 생각과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순종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 눈을 가리던 색안경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훈과 담대함이 채워진다. 그 따뜻한 손길을 통로 삼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18절). 아나니아의 능변이 아니라, 떨리는 손으로 순종한 그 행동 하나를 통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온 천하를 뒤흔드는 바울은 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떨리는 손으로 영혼을 찾아간 아나니아는 될 수 있다.

나눔과 기도

-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내가 서툴고 떨리는 마음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의 순종’(전화, 선물 전달, 식사 초청 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 걱정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자.